

필립스타크의 디자인 언어와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 실내디자인과 가구디자인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esign Language and the Expressive Characteristic of Philippe Stark

- Focused on the Interior Design and Furniture Design -

김수정* / Kim, Su-Jung

문정인** / Moon, Jung-In

이상호*** / Lee, Sang-Ho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quire into the expressive characters of philippe stark's works regarding his design concept.

This study examines Philippe stark's design works except for furniture design. It also looks into the modern design trend, France design trend, background of his growth and people who have influenced him.

Firstly, this study examines Philippe stark's five design works after 1997. Second, the study is going to analysis the fact between his interior design and furniture projects to read their mutual relation.

As a result from this study, first, the understanding of Philippe stark's works in harmony with the dynamics of technology and aesthetics can provide his design languages, characteristics and current design trend. Second, Philippe stark can create unfamiliar space through experimental though and imagination.

The study present data on Philippe stark and puts forwards the significance of his works and tries to lead the way of the relation interior design and furniture.

키워드 : 필립스타크, 실내 공간, 가구

1.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알렉산드로 멘디니(Alessandro Mendini)는 “프랑스에는 아주 오랫동안 디자인의 메시아 혹은 국민 영웅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 프랑스에는 필립스타크와 시트로엥(Citroing)자동차가 있다”라고 필립스타크를 평가했다. 프랑스 디자인계는 항공기 디자인이나 T.G.V.열차 디자인 그리고 패션디자인에서 미미하게 일부 두각을 나타내다가 1980년 이후 미테랑 정부가 들어서면서 가구디자인, 인테리어디자인 등 각 디자인분야에 걸쳐 독특한 개성을 지닌 젊은 디자이너의 출현으로 그 국제적인 위치가 상승되기 시작했다. 그 주역은 프랑스 디자인계에 아주 적당한 시기에 등장한 필립스타크이다. 그는 제품, 가구 그리고 실내디자인, 건축에서부터 칫솔에 이르기 까지 그의 작업 범위는 장르의

구분 없이, 어느 장르에서든지 그만의 독특한 표현 양식을 구축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 끌고 있다. 또한 상품성과 함께 사람들에게 미술작품처럼 높은 수준의 조형성을 인정받으며, 세계에서 유명한 디자이너중 한 명으로 지목받고 있으며, 그의 디자인에 대한 추종자들을 만들어 왔고, 실제로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졌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연구되어온 필립스타크의 제품디자인을 제외하고, 필립스타크의 실내디자인과 가구를 통하여 그의 디자인 언어와 표현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현재 필립스타크는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세계디자인계와 프랑스 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필립스타크는 현존하는 젊은 디자이너 가운데 제품, 가구, 건축, 인테리어 분야에서 가장 왕성한 작업을 하고 있는 슈퍼스타 중에 한사람으로 그의 작품에 나타나는 표현 특성과 디자인 경향들에 대해 살펴보고, 특히 그의 디자인 개념이 공간으로 가장 잘 표현 되고 있는 실내 디자인 작품 사례를 중심으로 디자인 표현 특성을 파악하는데 연구의 목적의 의미

* 정회원,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박사과정

** 정회원,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정교수

를 두고자 한다.

1.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내용은 기존 연구와 문헌을 참고하여, 국내·외에서 발간된 필립스탁의 작품집과 저서, 그리고 정기, 부정기 간행물을 통해 발표된 작품과 필립스탁의 인터뷰 기사를 기초로 하여, 필립스탁의 성장배경 그리고 그의 대표작품 중 1984년에서 1994년대에 디자인되어진 실내공간과 가구의 상호연관성을 중심으로 실내디자인 사례와 가구디자인 사례, 디자인개념, 형태와 재료를 분석하여 필립스탁의 디자인언어와 표현 특성의 고찰을 통한 최근의 인테리어 및 가구 디자인의 동향을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방법으로는 그의 작품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스타크의 이력은 크게 3시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제1기는 1962-1992년, 제2기는 1993-1996년, 제3기는 1997년 이후의 시기¹⁾ 제 1기의 스타크는 많은 작품들과 열정으로 점철된 “몽상가(a dreamer)”적 특징이 있으며, 제 2기는 작품에 상징과 유머를 부여 사회적 모델과 에콜로지에 대한 책임을 강조한 특징을 보여 주며, 제 3기는 카달로그와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디자인 전파 수단으로 활용하여 사회 개혁적인 활동에 주력한 시기로 볼 수 있는데,²⁾ 본 연구에서는 제3기에 해당하는 작품을 제외하고 1982년부터 1996년 사이의 그의 실내디자인 작품들로 제한하였다. 이는 작품의 양이 많아 제한할 필요가 있었으며, 선견된 작품들은 그의 초기 작품인 동시에 유명디자이너로서 입지를 굳히게 하였을 뿐 아니라 그의 조국인 프랑스, 그리고 미국과 아시아등 작품이 위치한(site) 도시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의 결과물로서 분석의 틀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지기 때문이다.

<표 1> 분석대상

| project | site | year |
|--------------------|------|------|
| 카페 코스트 | 프랑스 | 1984 |
| 로얄튼 호텔 | 미국 | 1988 |
| 아사히 비어홀 | 일본 | 1989 |
| 파리마운트 호텔 | 미국 | 1990 |
| 페닌슐라 호텔의 Felix레스토랑 | 홍콩 | 1994 |

본 연구는 상기 작품들의 분석결과를 근거로 필립스탁의 디자인 특성을 연구의 결론으로 제언한다.

본 연구는 슈퍼스타로 불리 우는 한 디자이너에 대한 것이라기보다 디자인 일반에 대한 밀도 있는 연구가 되길 기대한다. 이는 본 연구가 현대 디자인의 흐름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또한 현대 사회에서 요구되는 디자인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P Dormer: The Meanings of Morden p.104

2)서병기, 필립스탁 제품디자인에 대하여, 서울여자대학교, p.25

2. 현대디자인의 경향과 프랑스디자인계의 동향

2.1. 현대 디자인의 경향

현대의 디자인경향은 두 가지로 대표될 수 있다고 보는데 첫째 각 민족, 각 지역문화의 정체성 및 공동체의 문화적 경험을 중시하는 것으로 현재 세계적으로 성공한 상품들은 대부분 뛰어난 문화 해석력에 바탕을 둔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다국적 기업이나 초국적 기업과 세계시장을 공유할 수 있는 보편적 감수성을 가진 디자인을 하는 경향이 하나이며,

두 번째로는 정확한 목표를 가지며, 풍부한 정책과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디자인으로 확실한 지역과 특별한 사용기준에 의해서 디자인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치품의 경우, 그 제품의 디자인 지역이나 디자이너의 이름, 생산지를 밝혀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2.2. 프랑스 디자인계의 동향

1980년 이후 프랑스 디자인계에서는 1970년대의 무기력한 문화적 측면에서 벗어나고 있었다. 젊은 디자이너들은 기성가치, 기성디자인(기능주의, 합리주의)을 거부하고 안티디자인, 카운터 디자인(anti design, counter design)을 향하고 있었다.³⁾ 당시에 프랑스는 현대 디자인에서 요구되는 양면성을 이용하여, 프랑스 특유의 강한 장식적인 구성요소로 기념비성을 띄게 된다. 프랑스는 기술프랑스, 산업프랑스의 이미지를 해외에 구축하기 위해서 80년대부터 대외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이는 프랑스가 역사와 지리적으로 그리스, 로마, 게르만의 다문화 요소들과 복합되어 있어서 프랑스인들은 주지주의적(主知主義)⁴⁾, 법률주의적 기질과 주변국의 문명, 제도의 영향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자연적 조건에 있으며 프랑스인들은 논리와 비판을 겸하는 주지주의(主知主義)와 구체적인 것을 존중하는 실증적 정신으로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명료한 카테고리 설정을 즐기는 것이 프랑스인의 대표적인 성향이기에 때문에 가능했다.⁵⁾ 1990년대의 프랑스는 정부부서인 메종 드 프랑스에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서 혁신5개 주요방침을 수립 맹활약을 한다.⁶⁾ 프랑스인들에 디자인(Design), 디자이너(Designer)용어의 해석을 보면 창작, 창조, 창작가라는 용어를 선호한다. 프랑스는 20세기 초반부터 제2차 세계대전까지 파리 학파(Ecoloe de Paris)를 중심으로 독일의 바우하우스학교와 울름 조형대학과 같은 이론적인 디자인학과를 형성하지 않았다.

3)P. Dormer: The Meanings of Morden p.304

4)주지주의 (Intellectualism): 지성 또는 의지나 감정보다도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철학 상의 입장

5)윤민희, 현대 프랑스 디자인의 경향, 경희대학교, p.98

6)프랑스문화원 대외이미지 위원회, 알리앙스 프랑스와즈(홍보심사위원) 프랑스 관광 산업촉진 부서 메종 드 프랑스(Maison de la France), 1980, p.101

다만 프랑스 디자인을 형성하는 두 개의 큰 흐름은 아르 데코 (Arts Decoratifs)와 기술자(Ingenieur)의 전승이다. 아르 데코 정신은 근본적으로 독일 바우하우스 정신과 대립 되는 것으로 프랑스 디자인으로 상징되는 항공 산업, 운송기기, 기초과학, 무기, 패션산업과 같은 종목뿐이었다. 이와 같이 프랑스 디자인은 기능성과 장식성의 공존이 큰 디자인의 동향된다.

3. 필립스탁의 일상적 디자인 경향

3.1. 작가의 성장

프랑스 태생 필립스탁은 1949년 생으로, 어린 시절을 파일럿이며 비행기를 설계하는 아버지의 작업실에서 보냈다.

항공엔지니어의 디자인 개념은 구조와 재료를 가볍고 경제적이고 그리고 연료가 적게 들며 운송비와 보관비가 적게 드는 것에 대한 개념이었고, 이것이 바로 그의 디자인에 영향을 주었다. 그의 디자인에는 또한 독특하게 중력에 대한 깊은 인식이 있어서 시각적 경제함과 우스꽝스런 규모가 있다. 이는 반기계적 태도이며, 반면 자본주의적 성향으로 볼 수도 있다.

그는 1979년 30세 때 “Starck Product”이라는 회사를 만든다. 세계적으로 반항적인 실험적 디자인이 추구되던 풍토 아래서 스타크는 “유행타파적(Subverchic)디자인”을 모색하기 시작한다.⁷⁾ 1982년 프랑스 엘리제궁내 미테랑 대통령의 개인 아파트 인테리어로 세상의 관심을 받게 되었고, 1984년 카페 코스트로 디자인 인지도를 높였고, 1988년 뉴욕의 로얄튼 호텔 디자인은 새로운 트렌드를 창출하는 성과를 나았다.

3.2. 필립스탁 디자인에 미친 영향

(1) 디자인개념

필립스탁이 피력한 디자인에 미친 영향은 그의 인터뷰에서 알 수 있는데 “아름다움이란 구시대적 개념으로 오늘날 사회가 직면한 위급성에 대처하지 못하며 오히려 사치시대에에서만 효용과 인기가 있는 것으로 오늘날 디자이너가 해야 할 일은 미적 물건을 의미론적으로 대체하여야 하며 아름다움을 훌륭함 즉, ‘선(善, good)’으로 대체하는 것이다.”⁸⁾ 또한 “선이란 정직한 것이고, 유용성과 쾌적함으로 인간에게 봉사하는 것이며, 인간이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고 정확한 판단을 하도록 돕는 사람이다”라고 정의 하고 있다. 그는 “지난 몇 년 동안 디자인계는 디자인을 과도하게 행함으로써 90% 이상이 인간성에 봉사하기 보다는 오히려 배치되는 남성적(=미적, 허세적, 상업적)특질에 관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중략) 이를 극복하려면 여성적 특질의 구조 (=사랑)로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⁹⁾ 여성적

지혜의 구조는 오히려 훨씬 현대적이고 원만하며, 응집적”이라고 말하는 필립스탁은 “여성적 디자인의 본질을 ‘유머’에 있다고 판단(중략)” 이를 그의 작품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유머야말로 인간 지혜의 가장 흥미로운 특징이다. 나는 내 디자인에 유머를 대입하고자 애를 쓰는데, 그것은 언제나 우아함을 나타내고, 가장 군더더기가 없으며, 결국 그로 인해 엄숙함을 성취하게 된다. 그것은 풍자나 비꼬미 없는 가장 여성적인 것이다”라고 말한다.¹⁰⁾

(2) 상업성

필립스탁은 인간의 삶의 근원적인 문제로서 환경문제에 대해 상업적 미를 추구하는 디자인은 과소비를 낳기 때문에 부도덕한 것이며 예를 들어 1990년 “소재의 재사용(reuse)은 넌센스며, 재사용은 재순환(recycle)을 목적으로 하는데, 그것은 본질적으로 신 소비를 부추” 인다고 말한다. 필립스탁은 해결책으로 제품의 내구성을 높일 것을 권장 했다. 즉 고급 보트를 디자인해달라고 오는 고객에게 대신 수영을 하도록 권고한 사실을 즐겨 인용하고 있다. “나의 최대 승리 중 하나는 내 의자의 가격을 낮춘 일이다. 최초의 프로젝트 중 하나인(카페 코스트)의자는 출발 당시 4,000프랑에 팔렸지만, 지금은 300 프랑 미만에 판매 된다.”라고 하면서 그의 디자인에 대중성과 상업성을 강조했다.

(3) 체험적인 사고와 경험

필립스탁은 철저하게 체험적인 사고와 경험을 통한 발명가적인 상상력을 갖고 디자인 하는데 이는 필립스탁의 디자인이 형식적 틀을 갖고 접근할 수 없는 이유이다.¹¹⁾ 그 만큼 표현 방법이 다양하고 가리지 않는다. 그의 디자인은 안에서부터 보면 이해하기 쉽다. 예를 들어 의자는 왜 다리가 4개 이어야 하는가 하고 묻는다. 그 속에서 나온 것이 한 쪽 다리를 없앤 비틀어진 의자, 뒷다리를 좌석에 그대로 연결시킨 의자, 또는 뒷다리를 아예 없애 빙글 빙글 돌릴 수 있게 만든 의자, 등받이와 앉는 자리의 방향을 서로 다르게 해 마치 뒤로 돌려 앉는 느낌의 의자, 전혀 의자처럼 보이지 않는 의자 등이다. 필립스탁 디자인에는 명확한 코드가 없다.¹²⁾ 그가 디자인의 제목으로 붙인 것들도 그의 실체도 아니고 범주화 되지도 않는다. 오히려 작품에 대한 범주화를 어렵게 함으로서 예측을 피하고 자신의 자유를 지켜나간다.

(4) 공상과학(SF소설)의 영향

필립 K. 딕(Philip Kindred Dick)의 공상과학소설에 영향이 다. 필립스탁은 개인이 즐겨본 만화, 친구나 지인들과의 대화, 그리고 시대의 상징인 영화 속에서 그만이 가지는 지극히 개인

9)Philippe Starck, Philippe Starck, Taschen, 1996, p.304

10)designNET, 2003. 05, p.67

11)월간인테리어 12월, p.6

12)designNET, 2003. 05, p.67

7)P. Dormer: The Meanings of Morden, pp.62-63

8)월간 designNET, 2003, 05, p.67

적인 일상을 디자인 한다. 이는 SF소설가 필립 K 디의 공상과학소설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필립스타크의 인터뷰에서도 알 수 있다. 필립 K 디는 1963년(높은 성의 사나이)로 휴고상을 받은 가장 독창적이고 개성이 뚜렷한 등장인물을 창조하는 작가이며, 복잡한 구성을 구사하는 전통 SF작가이다. 초능력, 로봇, 우주여행, 미래의 가공할만한 무기, 대체역사, 병렬세계, 외계인 등을 채택하면서도 통속적인 우주의 활극으로 빠지지 않고 탁월한 구성과 진지한 메시지를 담은 1928년생 미국 시카고 태생의 작가이다. 필립 K 디의 작품은 영화화 한 것이 많은데 개봉작으로는 1982년 리틀리 스콧 감독의 영화 “블레이드러너”, 1989년 아놀드 슈왈츠체너거 주연의 “토탈리콜” 2002년 스티븐 스피버그 감독의 “마이너리티 리포트”등 이다. 필립스타크는 열렬한 팬 가운데 한 명으로 소설의 원작에서 받은 영감을 디자인으로 전개 하였는데, 소설과 영화에서처럼 시대의 구분 없이 오히려 낯익은 고전을 차용하고, 특유의 낯설고 매혹적인 미래 세계 혹은 복고적인 실내공간을 만들었음을 인터뷰에서 그는 밝힌바 있다. 크리스틴 콜랭(Christine Colin)은 “디자이너로서의 필립스타크는 프랑스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필립 K. 디의 공상과학소설 ‘유빅’¹³⁾(ubik)과 함께 태어났다.”라고 말 한다.

5) ‘스타크스러움’의 의미

필립스타크는 세계 어느 디자이너보다 자신의 스타일을 완벽하게 구축하고 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그의 작품세계를 ‘스타크스럽다’ 라는 말로 표현하며 스타크에 대해 글을 쓰는 사람들과 비평가들은 스타크의 디자인을 가리켜 ‘스타크블’(Starckable)하다고 표현 하는데 이러한 스타크스럽다는 말과 그리고 표현하기를 주저 하지 않는 전지전능한 ‘슈퍼 스타크’(super Starck)은 몇 마디 말로 정의할 수 없을 정도로 ‘난해’하지만, 듣는 순간 누구나 공감을 표현할 정도로 정확한 표현이기도 하다. 스타크는 최근 자신의 로고를, 이름 중 T자를 십자가 형태로 변화 시켜 마치 자신을 신의 위치로 올려놓았다. 이는 스타크의 전지함이란(omnipresent) 10달러만으로도 스타크의 제품을 살 수 있는 생활 어느 범위든, 세상 어느 곳이든 스타크 물건으로 가득 채우는

Value = $\frac{funcion}{cost}$ ‘디자인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나타냈다.

13) 1980년 필립 킨드레드 디(Philip Kindred Dick)의 (유빅 Ubik 1969년)은 공상과학소설 속에 나오는 이름으로- 파리 필립스타크의 회사이름이다. Philip Kindred Dick의 작품을 영화화한 것은 “Ubic”1969년 개봉작, 2004년 개봉된 “페이체”, 1982년 개봉작 “블레이드러너”, 1989년 개봉작 “토탈리콜”, 2002년 개봉작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있다. 상기 개봉 영화들은 SF액션 스릴러로 낯설고 매혹적인 미래세계를 창조했다는 평을 받았다. 그는 48편의 장편과 100여 편의 단편, 신비 체험에 관한 100만 단어 이상에 이르는 방대한 주석이라는 큰 업적을 쌓았지만 생전에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했다. 대표작으로는 1968년(안드로이드는 전기 양을 꿈꾸는가)가 있으며, (높은 성의 사나이)로 1963년 휴고상을 받았다.

4. 작품 사례 분석에 의한 개념고찰

4.1. 실내의 디자인 개념 분석

필립스타크의 실내디자인 특징 중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주마등같이 변하는 광경(Phantasmagoria)의 연출에 있다. 그의 프로젝트는 입구를 잘 찾기 어렵게 되어 있고 외관에서는 흥미로운 매력이 전혀 느껴지지 않다가 내부로 들어서면, 드라마틱한 연출로서 공간이 화려하게 펼쳐진다. 예를 들어 뉴욕에 있는 파라마운트 호텔 입구에 들어서면 벽에 영구적인 화병을 만들어 놓아 꽃을 꽃지 않을 수 없게 되어있다. 꽃이 시들면 새 꽃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계절에 따라 꽃의 종류를 달리하여 연출함으로서 변화를 줄 수 있다. 또한 이 공간은 이런 변화 뿐 만 아니라 고객 자신이 만들어 내는 변화로 경험하는 공간을 만들어 놓았다. 로비에서 중층으로 가는 계단을 오르는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뚜렷이 형성 되도록 조명을 연출해 놓았는데 이를 통해 혼자 계단을 오르면서도 동행자가 바로 옆에 있는 동반의 느낌을 경험 하게 된다. 오히려 지역적, 건축적으로 실패한, 아무 매력 없는 장소가 새로운 이벤트 공간으로 재창조되는 것이다.

여기서 필립스타크의 작품 중 1980년에서 1990년대에 디자인 되어진 작품들 중에 카페 코스트(1984-프랑스) 로얄튼 호텔(1988년-미국), 아사히 비어홀(1989년-일본), 파라마운트 호텔(1990-미국), 페닌술라 호텔의 Felix레스토랑(1994년-홍콩)으로 연구하였다.

(1) 카페 코스트(1984년-프랑스)

파리의 풍피두 센타와 포름 레알사이의 생 이노생 이란 작은 광장에 1984년에 완공된 카페 코스트(Cafe Costes)는 건축주와 필립스타크 두 사람의 치밀한 설계시나리오로 이루어졌다.

1) 디자인개념

전통적인 프랑스 카페 스타일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종류의 카페가 되었다. 19세기 말에 지어진 건물 3층 전체를 골조만 남기고 오픈을 시킨 것도 종래의 리노베이션 스타일보다 더 과감한 방법이었다. 입구에 들어서면 정면에 보이는 중앙의 계단과 원형의 시계를 볼 수 있는데 이 카페의 중요한 심볼 마크의 역할을 한다. 카페라는 장소에서 시계의 존재란 그 속에 들어오는 사람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면에서 상징적이며 철학적인 공간으로 개념화하여 계획한 것이다.

2) 형태적 특성

중앙의 두 기둥은 원형으로 피복하고 공간중심은 직선과 부채꼴, 호 등 주된 기하학적 요소를 사용하여 평면을 계획 하였다. 이 요소들을 매스로부터 의자 및 테이블에 이르기까지 적용하였다.

3) 재료적 특성

수성페인트와 광 천정 유리, 그리고 스틸 핸드레일, 가구는 에나멜 페인트로 칠한 튜블러 강철프레임에 곡선으로 된 마호가니 합판과 가죽커버로 된 쿠션 좌판을 사용하였다.

(2) 로얄튼 호텔(1988년-미국)

뉴욕 맨하튼에 위치하고 있는 로얄튼 호텔(Royalton Hotel 1988년)은 필립스탁의 첫 번째 호텔 프로젝트로 육중한 동양적 느낌의 문을 열고 들어서면 길고 화려하게 펼쳐지는 드라마틱한 내부공간을 보여준다.

1) 디자인개념

좁고 긴 로비는 44번가 입구에서 43번까지 연장되는데, 이는 열주에 의해 더 확장된 느낌이다. 필립스탁은 프랑스의 비스트로(bistro)¹⁴⁾의 고전적 공간을 로얄튼 호텔의 주 개념으로 세웠다. 이 긴 로비를 따라 바와 레스토랑이 연결되면서 1980년 히피클럽(hippiest club)같은 활력 있는 공간의 개념으로 계획하였다.

2) 형태적 특성

고전형태를 차용한 열주와 고전적 형태의 의자 이지만 소재와 색을 한결 가볍게 한 소파들 그리고 소뿔을 형상화한 벽등을 적용하였다.

3) 재료적 특성

스틸 폴리우레탄 폼, 알루미늄 합금, 벨벳과 가죽으로 마감되어 있다.

(3) 아사히 비어홀(1989년-일본)

일본에 있는 아사히 맥주 회사(Asah 1989년)의 비어 홀 문을 열면 필립스탁이 만들어낸 환상적인공간으로 들어선다.

1) 디자인개념

성경 속의 노아의 방주처럼 거대한 배를 연상 시키는 건물 본체에 쇠뿔 모양을 한 화염의 상징물을 만들어 올렸다. 이는 건물의 하단 부분을 좁게 디자인한 파격적인 조형으로 옥상에 있는 화염의 상징물의 부양성(floatness)을 강조하고 있다. 내부의 디자인은 볼륨감이 느껴지는 체양적(voluminous)형태로 두드러지지만 또 한편으로는 경쾌한 느낌을 준다. 또 이 분위기를 희석시키는 플라스틱 장식 판이 각각의 테이블에 붙어 있어 2개의 다이닝룸을 장식 한다. 벨벳 문을 통해 들어가면 역시 벨벳 의자와 필립스탁의 트레이드마크인 파란 유리질의 촛대가 빛나는 연회실이 있다. 불편한 메탈소재의 검은 의자는 하나의 장식처럼 내부의 초현실적 디자인개념으로 요술 호리병 속 같다.

2) 형태적 특성

막연하게 사람 모양과 비슷한 기둥과 계단은 서로 엮여 있어 또 다른 내부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다.

14)bistro(bistrou)프랑스 식 작은 바(레스토랑, 나이트클럽)

3) 재료적 특성

회색 벨벳으로 벽을 마감한 굵은 벽에는 상감세공을 한 벨벳줄로 장식되어 있다.

(4) 파라마운트 호텔(1990년-미국)

뉴욕 맨하튼의 파라마운트 호텔(Paramount Hotel 1990)은 중심가인 8번가와 타임스퀘어사이 46번가에 위치한다. 필립스탁 자신의 삶의 여러 방식의 사례를 보여주듯 일반적 호텔의 개념을 넘어 레저공간이나 레스토랑처럼, 그의 독특한 아이디어로 파라마운트 호텔을 대화의 장소로 디자인 하였다.

1) 디자인개념

사람들이 호텔에 묵으면서 시각적인 놀라움, 새로운 형식과 형태, 테이블을 디스플레이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삶의 새로운 방식을 제안 하고 있다. 엘리베이터는 세 종류의 색깔로, 홀은 레저공간이나 레스토랑처럼 역동적인 사회적 활동이 형성되는 공간으로 개념을 설정하고, 극장세트식으로 가구를 위치시켜 공간 연출을 하여 마치 내부공간을 무대 세트처럼 변형시켜 전통호텔과 다른 디테일,接客방법으로 호텔을 방문한 손님을 무대에서 식사를 하는 듯한 분위기를 디자인 개념으로 하였다.

2) 형태적 특성

네모나고, 크고, 넓은 로비 공간에 매우 다른 각도로 기울어진 계단을 위치시켜 색다른 느낌의 호텔로비를 만들었다. 호텔의 중심축인 동시에 가장 왕성한 활동이 이뤄지는 중앙 로비 홀은 정사각형 볼륨에 중층구조로 이루어지도록 해서 두 개의 커다란 벽면을 중심으로 아래층과 서로 다른 이미지로 아래층 중앙 로비 홀에서 보여 지는 이미지는 이 호텔의 시각적 물리적 관계를 중심핵으로 만들었다. 이를 1층에서 보면 전망대가 되는 발코니공간을 구성하고, 중층에서는 호텔 레스토랑과 갤러리로, 갤러리에서도 역시 1층이 전망되도록 했다. 기능적 특색과 관련하여 이 프로젝트는 호텔의 리셉션 공간을 사회활동의 중심으로 바라보는 발상 전환이 되었다. 객실 공간은 들어서면 평범한 방에 가득한 책과 그림들이 마치 가난하거나, 익살스럽고 절충주의적인 예술가의 방처럼 공간을 계획하였다. 셋팅된 가구의 디자이너들은 카로스 리타(Carlos Riart), 안토니오 가우디(Antonio Gaudi), 장 미셸 프랑크(Jean-Michel Frank), 말코 제누소(Marco Zzzanusso), 조셉퍼 마리슨(Jasper Morrison), 마크 뉴슨(Mark Newson)등이다.

3) 재료적 특성

건물 파사드는 대리석 까라라, 유리벽, 바닥에 스테코와 플라스틱(회색), 벗 나무, 폴리우레탄, 가죽과 벨벳, 반투명한 색채와 백색, 독특한 색과 다원적 표현이 돋보인다.

(5) 페닌슐라 호텔의 펠릭스 레스토랑(1994년-홍콩)

홍콩 페닌슐라 호텔의(Penninsula Hotel) 28층에 위치한 펠릭스(Felix 1994)레스토랑은 홍콩의 명소이다.

1) 디자인개념

레스토랑은 사람들의 얼굴로 프린트 되어 있는 의자로 가득하다. 첫 손님일 지라도 레스토랑은 사람들로 가득 차 보인다. 이는 접객의 방법으로 그가 만들어낸 시나리오이며, 테이블 셋팅에 이르기까지 디자이너인 필립스탁 자신의 관심과 참여의 의미라고 할 수 있다.

2) 형태적 특성

시각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내부를 크게 와인바(The wine bar), 발코니(The Balcony), 미국식 바(The American bar), 크레이지박스(The Crazy Box)로 나누어 각각 독특한 공간을 계획하였다.

3) 재료적 특성

다호가니 위 스테인 처리, 면으로 된 천, 주조한 알루미늄에 청토색의 락카칠로 마무리한 공간이다.

4.2 가구의 디자인 개념 분석

필립스탁은 프랑스 태생의 디자이너 대부인 레이몬드 로위(Raymond Loewy)¹⁵⁾가 평소 디자인개념으로 강조하던 ‘아름다워야 잘 팔린다(Never leave enough well alone).’란 말을 즐겨 인용한다. 그는 로위의 탁월한 기업가 정신을 숭배한다. 디자인은 소비자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고 디자인의 존재가치는 사용자가 곁에 두고 살기 알맞은(easy to live with)정도에 의해 결정 된다고 생각한다. 그는 “스타일리쉬”로 대변되는 자신의 디자인에 대해 오히려 “스타일이 없다.(No Style)”라는 말로 대신하면서 스타일이 아닌 기능(Function)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디자인의 핵심이자 비결이라고 전했다.¹⁶⁾ 이는 아방가르드 디자이너들의 작가적·예술가적 과잉제스처에 대한 필립스탁의 거부감을 뜻한다. 디자이너는 ‘서비스’를 위해 존재하며, 그 서비스가 좋으려면(Good design) 제품은 기능적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카페 코스트(Cafe Costes)의 가구 디자인을 하면서 필립스탁은 가구가 가벼워야 하고 쉽게 조립 및 해체할 수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소비자가 쉽게(값싸게)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필립스탁은 ‘경량성과 보관성이야말로 현대성의 성분’이라고 말하면서 항구적인 우아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외양은 모던(modern)해야 함을 주장한다. 예를 들어 가구 디자인을 할 때 보통 사람들은 수많은 스케치를 통해 그 형태 및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택하는데 필립스탁은 스케치

15) Raymond Loewy(1893 -1986)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난 레드먼드 로위는 예폴 드 라뉴 대학에서 엔지니어링전공. 1929년 ‘로위 디자인’을 설립해 글로벌한 디자인 컨설팅 사업. 그는 당시 디자인의 영역 구분이 없던 시기에 제품디자인, 운송기기 디자인 등 모든 분야에 걸쳐 현대적 감각을 불어넣었고 직접 디자인한 수많은 식품과 음료의 상표와 포장 등이 히트. 로위는 근대 사회 교훈으로 기업들에게 좋은 디자인과 스타일이 더 많은 제품을 판매케 한다는 사실과 디자이너의 컨설팅 능력은 판매 폭선을 향상시킨다는 믿음을 고취시킨 것.

16) 월간 인테리어 12월호, 2003, p.6

전에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발상의 출발점이 필립 K덕 원작의 영화, 어떤 때는 친구들과의 무심한 대화에서 시작해서 재료와 제작 방법 및 실제 제품의 가격까지도 표현 되는 스케치를 한다. 그가 디자인한 가구는 현대 가구 메카인 이태리에 수출 되고 전 유럽과 아시아 등에 수많은 대리점을 확보하고 번창하고 있다.

필립스탁의 가구의 개념은 첫째 형태 면에서 기하학적, 때로는 역학적인 구조 계산에서 얻어지는 기하학적인 비례의 순수성, 두 번째 재료의 단순성과 질량의 경쾌함이다. 필립스탁은 “하나의 가구라는 것은 그것이 태고 적부터 존재해왔고 또 그것이 영구적으로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상정적인 것이다. 만일 가구에 있어서 현대성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단순히 그 형태의 탐구만으로 부족할 것이다. 하나의 가구는 그것이 그 시대의 사회생활과 재료, 제작기술 등이 연결되는 것으로 사회성을 무시 하면 그 가구는 존재 자체가 없는 것이다.” “나는 현대성을 영구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싶다. 근 20년 가까이 아방가르드는 디자인은 항상 동작을 하며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 했으나 그 개념은 필연적으로 진실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혁명 그것은 방법이 없을 때는 나쁘지 않으나, 그 보다 개혁의 방법이 더 좋은 것이다. 이 점에서 이탈리아 순수 포르말리즘(Formalism)¹⁷⁾이라고 칭해 지는, 앓기조차도 거북한 혁명적인 의자가 만들어지고 있음을 대단히 애석하게 생각한다.” 인터뷰에서 말한 바 있다.¹⁸⁾

필립스탁은 아방가르드이거나 급진적이 아니며, 바우하우스적인 디자인의 보편타당성을 추구하고 있고, 정신적인 면이나 실용적인 면이나, 조형적인 면에서도 또는 상업적인 면에서도 치우치지 않는 완벽성을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2>는 그의 가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에서 대량생산되고, 디자이너와 산업체간의 협력관계와 제조업체와 구매자에게 어떻게 어필되는지 알 수 있다. 그의 가구디자이너 가장 적극적으로 산업에 적용되고 우수한 제조업체를 통해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태리 카르텔(Kartell), 드리아데(Driade), 그리고 독일에 공장을 두고 있는 스위스의 비트라사(Vitra)를 통해 필립스탁이 디자인한 가구와 조명기구, 주방용품등이 판매 되고 있다. 그의 디자인은 유럽, 아시아, 중남미, 북 미등 전 세계적으로 쉽게 찾아 볼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하고 광범위한 영역이며, 가구제조업체들과 그에 대한 신용은 상업적인 성공으로 증명되고 있다.

17) Formalism: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은 문학성 즉 문학 언어를 일상 언어와 구별되게 하는 일련의 기법과 관습을 연구하던 언어학자 및 문학비평가 그룹. 러시아 형식주의는 1914년경부터 1928년까지 존속.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의 작업은 1960년대에 재발견되었으며 많은 구조주의 문학이론의 발전에 이바지했다.

18) 서병기, 필립스탁 제품디자인에 대하여, 서울여자대학교, p.38

<표 2> 가구제조업체와 필립스타의 가구¹⁹⁾

| Manufacturer | Country | year / item | | | | | | | | | | | | | |
|--------------|-------------|-------------|----|----|----|----|----|----|----|----|----|----|----|----|----|
| | | 80 | 81 | 82 | 83 | 84 | 85 | 86 | 87 | 88 | 89 | 90 | 91 | 92 | 93 |
| Disform | Spain | | | 1 | | 1 | | | | | | | | | |
| Baleri | Italy | 1 | | | 1 | | 1 | | | | | | | | |
| XO | France | | 1 | 1 | 1 | 1 | | | | 2 | | | 1 | | |
| VIA | France | | | | | | 1 | | | | | | | | |
| Driade | Italy | | | | | | 3 | 1 | 3 | 2 | 3 | | 2 | 4 | |
| Vitra | Switzerland | | | | | | | | | | | 1 | | 1 | |
| Kartell | Italy | | | | | | | | | | | 6 | | | |
| Fiam | Italy | | | | | | | | | | | | | 1 | |
| Cassina | Italy | | | | | | | | | | | | | | 1 |

(1) 카페 코스트의 테이블, 의자

1) 디자인개념

카페 코스트를 위해 디자인된 가구개념은 부드러운면서도 우아한 곡선미를 볼륨 감 있게 표현하였는데 화제를 모았던 세 발 달린 의자는 배치 시 동선의 편리함을 중시 하였다.

2) 형태적 재료적 특성

유행과 상관없이 디자인계의 혁신을 가능하게 한 것은 다름 아닌 소재의 선택인데 에나멜 페인트로 칠한 튜블러 강철 프레임에 곡선으로 된 마호가니 합판과 가죽커버로 된 쿠션 좌

판 등으로 자유 분방한 스타일이 정교하면서도 인체공학적이다. 필립스타의 가장 잘 알려진 의자 디자인으로 코스테 의자는 「코스트」를 위해서 디자인된 초기의 대표작이다. 3본각의 대표 안트 চে어(anti chair)와는 반대로 배치된 다리는, 웨이터가 주문대로 상을 차리는 일할 때, 웨이터 다리를 배려한 디자인이다. 불과 47cm폭의 매우 좁은 의자이지만, 아름다운 곡선의 키와 적당한 탄력성이 느껴지며 가죽을 씌운 쿠션에 의해 안정감이 있다.

(2) 로얄튼 호텔의 침대, 의자 시리즈

1) 디자인개념

맨하탄 중심부에 위치한 로얄튼 호텔의 가구 개념은 “극장 같은 호텔” 그리고 “사교적인 로비공간의 예술화(Art of Lobby socializing)”이다. 로비는 스테이지 세트처럼 만들어 졌는데 필립스타가 뉴욕을 여행하면서 여행이란 흥미진진한 것으로 많은 여행객들이 로얄튼 에서 뉴욕의 흥미를 함께 느끼고자 하는 의도로 개념을 잡았다고 한다.

2) 형태적 재료적 특성

필립스타 에게는 뉴욕에 있어서의 최초의 프로젝트인 로얄튼 호텔을 위해서 디자인한 시리즈 의자는 스틸 폴리우레탄 폼을 옷감용으로 처리하고 전각다리는 알루미늄 합금 연마 마무리 하여 처리되어졌다. 매트리스는 스틸과 목재로 만들어진 침

19)전종찬, 산업디자이너와 디자인 엔터테이너로서의 필립스타, 사회과학회지 제12-1, 1998, p.68

대 시리즈이며, 그리고 스텔은 프레임이 알루미늄으로 처리되어있고 앉는 부분은 벨벳과 가죽으로 마감되었다.

(3) 아사히 비어 홀의 의자

1) 형태적 재료적 특성

필립스타의 대표적 도쿄 프로젝트인 아즈마교의 아사히 비어홀을 위해서 디자인된 안락의자는 벗 나무에 가죽을 씌운 쿠션으로 마감되어 있고 한쪽 팔걸이가 없는 유연성과 단순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바 카운터전용 스텔의 크기는 W35 D45.5 H85.5 바 카운터전용 스텔의 높이는 110cm용, 낮은 스텔은 90cm용으로 설계되고 있고 스틸 도장으로 마감처리 되어있고 의자 자체가 장식품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4) 파라마운트 호텔 의자

1) 디자인개념

파라마운트 호텔 로비는 레저 공간이나 레스토랑처럼 역동적인 사회적 활동이 형성되는 공간개념이다. 이와 같은 독특한 성격의 공간을 여러 디자이너의 가구작품과 각기 다른 시대의 가구들로 구성하고 있다.

2) 형태적 재료적 특성

사용된 가구는 필립스타 자신의 것과 카로스 리타(Carlos Riart), 안토니오 가우디(Antonio Gaudi), 장 미셸 프랑크(Jean-Michel Frank),등 과 1930년대 프랑스 가구, 말코 자누스(Marco ZZZanusso)등이다. 잡다한 형태와 색채 때문에 호텔의 홀은 독특해 보인다. 객실의 가구는 반투명한 색채와 백색구조, 침대의 공간감, 옷장과 애꾸는 같이 생긴 텔레비전으로 독특한 색과 다원적 표현이 돋보인다. 이는 필립스타의 시각적 감성주의가 실질적인 기능적 특성과 같은 비중으로 나타남으로서 그의 작품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필립스타의 뉴욕스튜디오 르크의 디자인으로 프로젝트인 파라마운트호텔을 위해서 디자인된 의자의 프레임은 벗 나무이고 폴리우레탄으로 포밍하고 가죽과 벨벳으로 커버된 안락의자이다.

(5) 페닌슐라 호텔 펠렉스 레스토랑의 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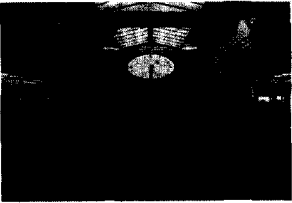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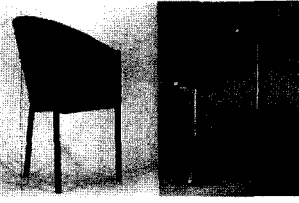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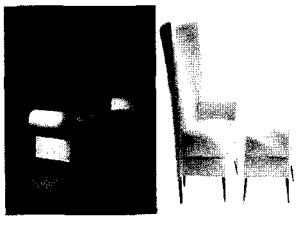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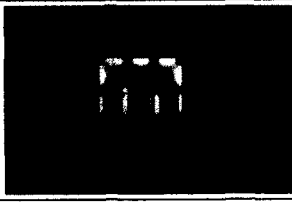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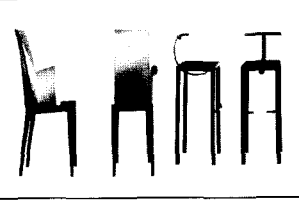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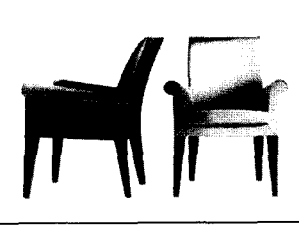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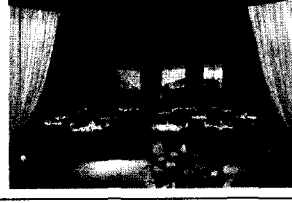

1) 디자인개념

필립스타 자신에서 그의 딸 Ara, 그의 약혼녀 페트리샤, 그리고 그 밖의 친구들의 얼굴이 흑백으로 의자 등받이에 프린트되어 있는 페닌슐라호텔 펠렉스 레스토랑 의자는 식당 안이 사람들로 가득 차보이도록 한다는 개념이다.

2) 형태적 재료적 특성

XO회사의 의자프레임은 마호가니에다 스텔인 처리하고 등받이 부분과 앉는 부분은 패드가 있고, 겹은 면으로 된 천으로 마무리하였다. 스텔은 페닌슐라 호텔 바에 있는 조각품처럼 보이는 의자이다. 구조한 알루미늄에 청록색의 락카 칠로 마무리한 작품이다.

4.3. 종합분석

| 프랑스 디자인키워드 | 주요작품 | 실내디자인 개념 | 가구의 디자인 개념 | 실내공간과 가구의상호연계성 |
|--|----------------------|--|--|--|
| 1980 복고풍 영향 바로크 부활 1981 포스트모던 등장 | 카페 코스테 (1984년) | - 카페 코스테에서의 정면의 시계는 공간 전체에서 상징과 은유의 역할로 물성의 충실한 표현이며, 또한 프랑스 전통카페의 1차원적 형태 차용은 새로운 가능성 제시로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데 사용. | - 심플하고 실용성 있는 혁신적 소재의 선택과 반면에 형태는 전통적인 가구 형태를 차용, 대상의 내용과 의미에 새로운 발견. | 전통가구형태에서 나오는 관습적 상징 3가지를 통해 ①기호, ②문화적 의사소통, ③유형적 접근 등을 가지고 실내 공간에서는 문화와 관습의 상징을 해체하여 실내공간에 소품으로서의 가구가 아닌 연계성을 가짐 |
| 1982 1983 네오모더니즘 1920년 복고열풍 일본풍 유행 | |  |  | |
| 1984 디스코열풍 | | - 프랑스의 비스트로(bistro)의 공간 - 1980년 히피클럽(hippest club)차용 | - 형태는 고전적이면서 재료는 단순한 재료를 사용하여 이미지를 표현 | |
| 1985 꽃무늬유행 1986 복고의 다양한 변화 1987 네오 리얼리즘 | 로얄트 호텔 (1988년) |  |  | |
| 1988 동양의 장식적 요소 1989 중남미 동양풍 1990 | 아시아비어 홀(1989년) | - 환상적이고 드라마틱한 공간 이미지 창출 | - 실내이미지를 반영하기 위해 독특한 형태의 가구로 표현 | 기존 질서에 대한 자율성 모색의 모습으로 기존의 형성된 가구의 경계를 허물고, 실내공간에 지배적 질서였던 기존가구의 형식을 부정하여 중의적 의미로 표현함으로써 연계성을 가짐 |
| 60년70년대 복고 | |  |  | |
| 1991 70년대 | | - 로바: 내부 공간을 극장세트식의 공간 연출 - 객실: 질충주의적이고 다원적인 공간연출 | - 다양성에 초점, 고전적 가구들, 다양한 디자이너의 가구들을 사용 | 습관적인 인식의 배제와 해체를 위해 비정상적인 소재의 희극 화(벨벳, 금색 줄)를 통해 초현실주의를 표현, 또한 시각적 표현을 위해 극도의 아방가르드적 가구로 실내공간과 상호연계성을 가짐 |
| 1992 아메리칸 무드 1993 뉴에콜로지 (newecology) | 파라마운트 호텔 (1990년) |  |  | |
| 1994 global | | - 접객의 방법으로 실내공간을 다양한 plot으로 구성 | - 의자 등받이 부분에 얼굴들을 프린트하여 시각적 희극화 | |
| 1995 포스트휴머니즘 | Felix레스토랑 (1994년) |  |  | 익숙한 사람의 얼굴들이 실내 공간에서 반복 되면서 요소 화 되고 오히려 실내 공간을 "낯설게"하여서 관습과 형식을 해체 하면서 새로움을 표현 실내공간과 가구와의 밀접한 상호연계성을 가짐 |

5. 결론

필립스타크는 프랑스 디자인의 테두리 즉 프랑스 디자인의 가장 큰 문제점 이었던 만연된 국수주의²¹⁾ 國粹主義, ultranationalism (국가주의에 가까운)와 과거 복권적이고 회고적인 경향에서 벗어나 현대 프랑스 디자인에서 뚜렷한 양식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디자인의 가장 큰 장점을 살려 극도의 형태의 자유로움으로 프랑스 디자이너로서의 가장 큰 매력인 창작의 무한한 상상력을 제공 하였다.

필립스타크는 이제 프랑스 자국을 넘어 그만의 21세기 마케팅 환경과 디자인 전략을 가지고 실행과 속도를 같이하고 있다. 그의 디자인은 초국적 가구제조회사에서 대량생산하는 방법으로 공예, 예술, 산업 사이에 위치하며, 많은 나라에서 동시에 상영되는 영화에서 나오는 키워드처럼 세계시장에 활발히 유통되고 있다. 필립스타크는 일품적인 오브제(Objet)경향이 강하고 또한 프랑스의 장식(Decoration)이라는 커다란 전통과 두 개의 장식 미술과 기술자(기사)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 기업의 생존 부동식인 $Value = \frac{function}{cost}$ 과같이 시장과 고객의 요구에서 균형을 가지고 있다. 필립스타크와 작업을 함께한 기술자들은 그의 해박한 기술력을 존중한다. 장 콕도²²⁾(Jean Cocteau)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프랑스는 모순 그 자체이다. 프랑스는 다른 세계와 비교할 수 없는 일련의 고유한 특징인 문화 이미지, 문명의 본질, 자유의 염원을 수출 한다”고 했다. 이러한 특징은 필립스타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의 취향은 일관성이 없으며 개인적인 호기심, 단순한 경험의 유일한 작용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필립스타크는 개인이 즐겨본 만화, 친구나 지인들과의 대화, 그리고 시대의 상징인 영화 속에서 그만이 가지는 지극히 개인적인 일상을 디자인 한다. 필립스타크 디자인은 장 콕도의 말처럼 디자인이 예술로도, 표현양식도 아닌 디자인 개념의 모든 문제를 일상화시키는 방법으로 창조적 시도를 하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필립스타크의 실내디자인 전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기술과 예술을 종합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순수성과 실용성, 조형성이 공존하는 다양한 오브제와 아이템 등을 형상화한다.

둘째, 필립스타크는 철저하게 체험적인 사고와 경험을 통해 발명적인 상상력을 발전시킨 디자이너이며 약간의 변형과 기존의

틀을 깬 자유로운 조형성을 통하여 오히려 익숙하면서도 낯선 공간을 창출해 낸다. 이는 그가 SF소설가 필립 K 디의(1982년 리틀리 스코트 감독의 명작“블레이드러너”, 1989년 아놀드 슈왈츠제너거 주연의 “토탈리콜” 2002년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마이너리티 리포트” 원작자) 열렬한 팬 가운데 한 명으로 소설의 원작에서 받은 영감으로 디자인 전개를 시대의 구분 없이 오히려 낯익은 고전을 차용하고, 특유의 낯설고 매혹적인 미래 세계 혹은 복고적인 실내공간을 만든다. 소재는 스텐레스 스틸, 폴리우레탄, 알루미늄합금 등등으로 고도의 기술과 정확성으로 우리의 고정된 개념을 바꾸어 주었다.

가구 디자인에서는 고전적인 형태의 가구를 차용하지만 절제되고 간결하면서 조형적인 디자인으로 재창조하고 특징은 가볍고, 보관이 용의하고, 구조가 간결하여 형태 또한 명쾌하게 한다. 재료로는 플라스틱을 많이 쓰고 있는데 플라스틱이 갖는 재질감과 다양하고 선명한 여러 가지 색채를 사용하여 발랄한 느낌과 유희적인 장난감 느낌을 주고 있어 그만의 상징성 (Icon)이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필립스타크의 실내공간과 가구 디자인 연계성에 대한 전반적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주력하였고, 앞으로는 작품의 구체적 측면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참고문헌

1. Stark Taschen Verlag, 2000
2. Stark conway, Loyd Morgan, Universe, 1999
3. 이정화, 필립스타크의 건축디자인 세계에 관한 연구, 한양여대는문집 제 25집, 2002, 9
4. 서병기, 필립스타크 제품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 연구 15, 2000.12
5. 전종찬, 산업디자인과 디자인 엔터테인먼트로서의 필립스타크, 사회과학논문집 제 12-1, 1998
6. 조성근, 필립스타크의 디자인작 ‘레몬즙짜개’에 대한 시각형상 구조 분석과 기술, 디자인학연구 제52호 V16, 2003 2
7. 제 4회 건축포럼, 건축환경심리의 측면에서 본 실내 디자인의 고찰, 필립스타크의 실내디자인 언어, 건축, 1996.03
8. 전종찬, 천재성이 돋보이는 미술사, 공간74
9. 정용원, 필립스타크, 디자인, 1987. 04
10. 박소영, 비움의 미학, design NET, 2003.05
11. 윤민희, 현대 프랑스 디자인의 경향, 경희대학교
12. 패션 비즈니스 사전, 교학연구사
13. <http://www.philippe-starck.com>
14. <http://www.xo-design.com>
15. <http://www.design-me.co.uk>

<접수 : 2004. 4. 30>

21) 國粹主義, ultranationalism 국단적인 국가주의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며, 타 민족 타 국가에 대하여 배타적 초월적 성격을 지닌다.

22) Cocteau, Jean(1889-1963) 프랑스의 시인이자 작가, 화가, 영화제작자이기도 했던 그는 1889년 파리근교에서 태어남. 1809년 “알라딘의 램프” 처녀출판, 1930년 “시인의 피”영화제작, 1963년 파리에서 사망. 그는 현재 가장 중요한 아방가르드 영화감독으로 평가받음.